

# 온라인대학 학습자의 평정성향이 강의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의길<sup>†</sup> · 김윤정<sup>††</sup> · 김주혜<sup>†††</sup>

##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대학 학습자들이 강의평가에서 보여주는 평정성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평정성향이 강의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1학기에 한 온라인대학의 재학생 1,098명으로부터 인구학적 배경, 학습활동, 평정성향,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은 강의평가 참여율과 평정일관성 영역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평정성향을 보였다. 참여율이 0%와 100% 등 양극단에 몰려 있었으며,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과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은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인구학적 배경과 학습활동 정도에 따라 강의평가 참여율과 평정일관성, 강의평가 결과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학습활동, 평정일관성은 강의평가 결과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평정성향을 세분화하여 드러냈다는 점과, 강의평가 결과 해석 시 학습자의 평정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강의평가, 평정성향, 온라인학습자, 온라인대학

## The effects of learners' rating tendencies on the course evaluation results in an online university

Euikil Lee<sup>†</sup> · Yun-Jung Kim<sup>††</sup> · Joohae Kim<sup>†††</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ating tendency of online university learners in their course evaluations and its effects on the course evaluation results. Data including the subjects' demographic information, learning activities, rating tendency, and course evaluation results were collected from 1,098 learners in an online university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5. There were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 subjects showed distinctive rating tendencies in participation rates for course evaluation and rating consistency. The participation rates went from one extreme (0%) to the other (100%), and the rating consistency among the test items was highly related to that among the courses as a whole. Second, the subjects showed different tendencies in terms of course evaluation period, rating consistency, and course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and learning activities. Third, course evaluation results were independently affected by demographic information, learning activities, and rating consistency. The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learners' rating tendencies concretely and suggested that such tendencies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zing course evaluation results.

**Keywords** : course evaluation, rating tendency, online learner, online university

† 정회원: 고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 정회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정회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6년 4월 8일, 심사완료: 2016년 5월 4일, 게재확정: 2016년 5월 19일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990년대 이후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를 적극 도입하였다[1][2]. 강의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해당 강좌의 질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교수자는 수업을 개선하며, 대학 정책결정자들은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원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의사결정 행위를 할 수 있다. 강의평가는 수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3].

강의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요인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강의평가는 'happy test'라는 별칭에서 나타나듯이 학습자가 수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고, 교수자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근거하여 평정한다는 근본적인 제한점이 있다[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학습자'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학년, 성별, 수강 동기, 성적' 등이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5][6][7][8][9]. 또한 강의평가의 모든 문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평정일관성의 경향을 지적하며, 학습자들의 비합리적인 태도가 강의평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적하는 보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0][11][12]. 강의평가가 강의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정이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의한 자의적, 비합리적 평정에 그칠 경우, 강의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강의평가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이나 성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대부분 일관적 평정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영역에 머물고 있다. 사실 강의평가 시 학습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은 평가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나 참여 시기 등 평정의 일관성 외에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점[13]을 고려할 때 평정과 관련된 일련의 성향은 보다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수자의 물리적 존재감이 희박하고 성인 학습자들이 대부분인 온라인대학에서는 평정성향(rating tendency) 이슈가 더욱 중요하다. 성인 학습자들은 연령, 직업, 학력, 인지 및 정서적 배경 등에서 매우 큰 수준의 다양성을 갖고 있고, 강의에 대한 '느낌'을 다른 학습자와 교감할 수 있는 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성향이 강의평가 시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14][15].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평가와 관련된 학습자의 평정성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그 평정성향이 학습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학습활동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강의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강의평가에서 학습자의 평정성향이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후속적인 의사결정 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만일 평정성향이 강의평가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대학 학습자는 강의평가에서 어떤 평정성향을 보이는가?
- 2) 온라인대학 학습자의 평정성향과 강의평가 결과는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 및 학습활동 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3) 온라인대학 학습자의 인구학적 배경, 학습활동, 평정성향은 강의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선행연구

### 2.1 강의평가 개관

강의평가는 통상적으로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과 교원의 인사관리 등에 필요한 지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16]. 대학은 이를 위하여 강의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학생평가, 동료평가, 행정가 평가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한다[16]. 다만, 현실적으로 교수의 자율성 존중과 평가의

편리성이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설문방식의 학습자 평정이 주된 강의평가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12][15][17]. 이 방식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확인 뿐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를 강의 질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따라서 강의평가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 설문방식의 강의평가를 주요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연구자들은 강의평가 범주 및 평가문항개선을 통해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거나[18],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의 탐색[19][20]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2][6][8][14][21][22]하거나,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는 평가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교수자 역량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연구[23][24]도 시도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점수 등 관련 분석 자료의 접근이 국내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9][25]를 제외하고는 강의평가에서 측정되어야 할 교수자 역량의 규정과 구성요소의 확인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26][27].

강의평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 의해 행해지는 현행 강의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영향력이 공정한 강의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11]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학습자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1][8][14]. 강의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 2.2 학습자 관련 변인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탐색된 학습자 변인은 대부분 인구학적 배경이나 학습활동 참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5][8][14][19][21]. 물론 교육의 주요 구성요소인 교수자, 교육내용, 학습자의 개별적 영향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함께 관찰한 시도들이 있었으나[1][2][22][28][29], 학습자 변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강의평가 결과와 관련된 학습자 변인 연구를 인구학

적 배경과 학습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으로서는 성, 학년, 성적 등이 주로 관찰되었다. 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2][11][30],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보고도 존재한다[1][22]. 이는 각 연구 맥락과 강좌 특성 개입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무리다. 이에 반해 학년과 연령은 강의평가 결과에 비교적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임형과 노은하[28], Ting[9] 등은 학년이 높을수록 강의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신일[22]는 평균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강의평가 시 호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온라인대학의 경우에는 편입이 많고 학년과 연령 간 상관성이 낮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년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연령에 따라 강의평가 점수가 높아진다는 점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14][31].

둘째, 학습활동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관심과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가 강의평가 과정에 어떻게 작용할 지에 관심을 둔다. 연구자들은 출석, 질문, 토론 참여 등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성실도 혹은 학습의욕 수준과 관련된 변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강의평가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8][21][25][28]. 온라인대학의 경우, 수업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학습자의 수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있으나[31], 이는 종속변인을 만족도 하나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학습활동이 강의평가 전반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활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찰과 강의평가 전반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2.3 강의평가와 학습자 평정성향

한편, 연구자들은 강의평가 참여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일련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보인다[10][11][30][32]. 이제까지의 학문적

관심이 강의평가라는 ‘중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 있었다면, 이 연구들은 강의평가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평정 성향을 확인하여 강의평가와 학습자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평정성향은 연구대상자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각 문항을 평정할 때 보이는 일종의 개인적 응답 성향을 의미한다[33]. 본 연구에서 이 개념은 학문적 혹은 조작적으로 규정되기보다 학습자들이 보이는 일련의 성향을 묶은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오차’는 응답자가 자신의 가치관, 성향, 태도, 감정, 경험 등에 따라 무조건 긍정, 부정, 혹은 중립으로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말한다[34]. Krosnick[35]는 응답자들이 각 문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보다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만 정보처리를 한 후 답변하는 응답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평정성향은 학습자들이 강의평가 시 평가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평정하는 측정오차와 함께, 평정 시에 나타내는 전반적인 행동 특성을 포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평정성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주로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모든 평가문항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일관적 평정’ 패턴에 주목한다. 이들은 대체로 일관적 평정일 때 강의평가 점수가 높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2][11][30][32][36]. 예컨대, 두 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비교한 양길석[11]의 연구에서 직전학기 수강 강좌 전체에 일관적 평정을 한 학생의 절반정도는 다음 학기에도 일관적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적 응답 여부는 학습자의 성별이나 학년, 수업참여도와 함께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보금, 김재용[30]은 단일 과목의 평가문항에 모두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경우와 전체 수강한 과목에 모두 동일한 점수를 준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별 수업에 대한 무성의 응답은 강의평가 결과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나 전 과목 일관적 평정에 따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관적 평정성향을 보이는 학습자는 성적이 우수

한 경우[2][32], 남학생이거나 학년이 높은 경우[11]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

한편, 강의평가를 학점확인의 선행조건으로 강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관적 평정성향에 차이가 있는지[37], 수강 과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19], 혹은 학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11]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관적 평정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또한 일관된 응답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문항의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0].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관된 응답이 곧 평가자인 학습자의 불성실함 혹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간주하며, 이러한 응답 태도는 학습자에 의한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학습자들의 일관적 평정이 불성실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나[38][39], 적어도 이들은 강의평가 결과가 강의 자체의 질 이외에 학습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을 뿐 아니라 학습자 관련 변인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학습자의 평정성향과 강의평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대학 상황에서의 차이 검증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일관적 평정 이외에 학습자들이 강의평가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혹은 이들의 개인적 성향이 강의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을 찾기 어렵다. 사실 지금까지 탐색된 평정성향 관련 변인은 학습자의 평정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은림[7]의 연구 외에는, 앞서 살펴 본 대로 평정의 일관성 여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강의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개인적 성향이 어떠한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강의평가 결과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평정성향에 따른 영향력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학년도 1학기 서울 소재 한 온라인대학교에서 개설된 10개 강좌의 수강생 1,965명 중 종강 후 30일 동안 시행된 강의평가에 참여한 1,098명(55.9%)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강좌는 이 대학의 3개 학과(사회복지학과, 실용외국어학과, 평생교육학과)에서 본 연구 참여교수 3인이 각각 담당한 3-4개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식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교수는 이 대학에서 11년-13년 동안 매 학기 3개 이상의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각 강좌에서 13개 차시의 콘텐츠 수강, 출석, 중간 및 기말고사 등의 학습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강좌에 따라 토론, 리포트 등의 추가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합계	
		N	%
성	남	310	28.2
	여	788	71.9
연령	30세 이하	302	27.5
	31-40세	357	32.5
	41세 이상	439	40.0
입학유형	신입학	393	35.8
	편입학	705	64.2
수강과목수	5과목이하	511	46.5
	6과목이상	587	53.5
학년	1학년	181	16.5
	2학년	93	8.5
	3학년	438	39.9
	4학년	386	35.2
합계		1,098	100.0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71.9%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41세 이상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입학유형별로는 편입학(64.2%)이 신입학보다 많았고, 해당 학기에 수강한 과목 수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중앙값(median)인 6과목을 기점으로 할 때 그 이상이 53.5%로 조금 더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39.9%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편입생이 많은 성인학습자 위주의 온라인대학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연령과 학습경험, 지적 수준 등이 유사한 오프라인 대학의 학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 3.2 연구도구 및 학습자 특성

본 연구에서 ‘강의평가 결과’는 이 대학 강의평가를 통하여 수집된 각 연구대상자의 해당 학기 모든 수강과목의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이다. 이 평가는 강의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을 수업활동, 수업내용, 상호작용, 평가, 강의 콘텐츠, 만족도, 추천의향 등 7개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수강생의 응답은 4단계 척도에 따라 0-3점의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수강생이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체적 사례로는 ‘나는 전반적으로 이 강의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이들 문항의 사후검정 신뢰도 수준(Cronbach alpha)은 .95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학습자 특성은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인구학적 배경, 학습활동, 평정성향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변인 중 성, 연령과 함께 온라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학유형, 해당 학기 수강과목 수 등이 추가되었다.

둘째, 학습활동 변인은 해당 강좌에서 연구대상자가 보인 전반적인 학습활동 혹은 학습의욕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의미한다. 본 영역에는 선행연구에서 강의평가와 의미있는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출석점수, 게시판 활동 등과 함께 온라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며 학습에 대한 성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횟수가 추가되었다.

셋째, 평정성향은 연구대상자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각 문항을 평정할 때 보이는 일종의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성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전체 수강과목 강의평가 참여율(이하 ‘평가 참여율’), 강의평가 기간 30일 중 연구대상자의 평가 참여일(이하 ‘평가 참여일’), 연구대상 과목에서 강의평가 시 문항별 점수의 표준편차(이하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전체 수

강과목 강의평가 점수의 표준편차(이하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등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중 평가 참여일은 30일 간의 평가기간 중 연구대상자가 참여한 일차를 의미하며, 평정일관성은 표준편차로 표시되기 때문에 수치가 작을수록 일관적인 평정 즉,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컨대, 평정일관성 0은 표준편차 0을 의미하므로 모든 평가문항 혹은 수강과목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 3.3 연구절차 및 자료의 분석

2015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가 종료된 후 이 대학 교무처의 협조를 얻어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학습활동, 강의평가와 관련된 각종 수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 목적에 맞추어 기술통계, t-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통계처리에는 SPSS 12.0+ 한글판이 사용되었다.

## 4. 연구결과 및 해석

### 4.1 평정성향

연구대상자들이 강의평가에서 보인 평정성향은 각 평정성향 변인별 기초 통계,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과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의 관계, 평정성향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주요 평정성향 변인별 기초 통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평정성향 변인별 기초 통계

		N	M	SD
전체 수강과목 강의평가참여율 <sup>1)</sup>	연구대상자	1,098	.98	.10
	비연구대상자	867	.03	.12
강의평가 참여일		1,098	14.85	7.50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sup>2)</sup>		1,098	.24	.26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sup>3)</sup>		1,098	.24	.28
강의평가 결과		1,098	2.14	.74

1) 전체 수강과목 강의평가참여율에 대한 연구대상자-비연구대상자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함( $F(1, 1,096)=12.25, p<.001$ )

2) 모든 문항에 동일 점수를 부여한 연구대상자 - 568명(51.7%)

3) 모든 과목에 동일 점수를 부여한 연구대상자 - 558명(50.8%)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수강생들이 각각 자신의 전체 수강과목 강의평가에 참여한 비율은 각각 98%와 3%로 거의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F(1, 1,096)=12.25, p<.001$ ). 강의평가 의도가 있을 경우 모든 과목에 다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 30일의 강의평가기간 중 강의평가에 참여한 일차는 중앙치에 매우 근접한 14.85일이었다. 강의평가 15일차에 이루어지는 학점 공개일과 거의 일치한다. <표 2>에 제시된 두 개의 평정일관성은 모두  $M=.24$ 이었다. 이는 표준편차로 표시한 문항 간 혹은 수강과목 간 강의평가 점수의 표준적인 평균차이가 0.24점으로, 정상분포곡선에서  $\pm 2$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95.6%의 연구대상자들이 부여한 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가 이의 4배인 0.96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연구대상자의 평정범위가 0.96점 즉, 1점 이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연계하여,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과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표 3>의 수치를 보면, 모든 평가문항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연구대상자의 69.5%는 전체 수강과목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역으로, 각 평가문항에 다른 점수를 부여한 연구대상자의 69.2%는 그들이 수강한 다른 과목에서도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다. 문항 간 평정일관성은 과목 간 평정일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hi^2=167.89, p<.001$ ).

<표 3> 평가문항 간 vs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의 교차분석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합계
		일관	비일관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일관	395(69.5)	163(30.8)	558(50.8)
	비일관	173(30.5)	367(69.2)	540(49.2)
합 계		568(100.0)	530(100.0)	1,098(100)

-  $\chi^2=167.89, p<.001$

<표 4-1>에 의하면, 연구대상자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이들의 평정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평정성향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검증)

		강의평가 결과			
		N	M	SD	t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일관	568	2.28	.73	6.75***
	비일관	530	1.99	.72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일관	558	2.30	.79	7.57***
	비일관	540	1.97	.65	
계		1,098	2.14	.74	

-  $p < .001$ \*\*\*

<표 4-2> 평정성향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F검증)

		강의평가 결과			
		N	M	SD	F
강의평가 참여일	1-10일	339	2.12	.75	.40
	11-20일	533	2.16	.73	
	21-30일	226	2.12	.73	
계		1,098	2.14	.74	

우선, 평가문항 간( $t(1,097)=6.75, p<.001$ ) 그리고 전체 수강과목 간( $t(1,097)=7.57, p<.001$ ) 평정이 일관적인 연구대상자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그렇지 않은 연구대상자들의 결과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 각 문항에 대하여 혹은 각 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연구대상자들은 해당 과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평가참여일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표 4-2>).

<표 5-1> 인구학적 배경 및 학습활동 정도에 따른 평정성향,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검증)

영역	변인		N	강의평가 참여일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강의평가 결과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인구 학적 배경	성	남	310	15.01	7.70	.45	.20	.26	2.85**	.21	.28	2.47*	2.24	.77	2.75**
		여	788	14.78	7.43		.25	.26		.26	.27		2.10	.72	
	입학유 형	신입	393	14.56	7.44	.93	.25	.27	1.63	.28	.28	3.44***	2.10	.73	1.45
		편입	705	15.00	7.54		.23	.26		.22	.27		2.17	.74	
수강 과목수	≤5과목	511	14.81	7.25	.14	.27	.27	3.53***	.27	.29	2.45*	2.07	.77	2.96**	
	6과목≤	587	14.88	7.73		.21	.26		.22	.26		2.20	.71		
학습 활동	출석 점수	만점	806	14.22	7.61	4.64***	.24	.27	.18	.25	.28	.82	2.17	.72	.43
		비만점	292	16.58	6.91		.24	.25		.22	.27		2.07	.79	
	게시판 활동	0개	819	15.44	7.32	4.54***	.24	.27	.92	.24	.27	.44	2.13	.76	.86
		1개이상	279	13.10	7.77		.22	.25		.25	.29		2.17	.68	
	로그인 횟수	상	542	13.40	7.72	6.44***	.23	.27	.90	.25	.27	.85	2.20	.70	2.73**
		하	556	16.26	7.01		.24	.26		.24	.28		2.08	.77	
계		1,098	14.85	7.50		.24	.26		.24	.28		2.14	.74		

-  $p < .05$ \*,  $p < .01$ \*\* ,  $p < .001$ \*\*\*

#### 4.2 인구학적 배경과 학습활동에 따른 평정성향과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

전반적으로, 강의평가 참여일은 학습활동, 평정일관성은 인구학적 배경, 강의평가 결과는 인구학적 배경 및 학습활동 두 영역에 걸쳐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먼저, 강의평가 참여일은 세 가지 학습활동 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출석점수가 만점( $t(1,097)=4.64, p<.001$ )이거나 게시판 활동이 많은 경우( $t(1,097)=4.54, p<.001$ ) 혹은 로그인 횟수가 많은 연구대상자( $t(1,097)=6.44, p<.001$ )는 상대적으로 강의평가 참여일이 빨랐다. 이는 로그인을 많이 하고 출석점수가 높으며 게시판 활동에 긍정적인 연구대상자들이 강의평가에 빨리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강의평가 참여일이 학점 공개일인 15일차 이전인 반면, 반대 성향의 연구대상자들의 참여일이 학점 공개일 이후라는 점도 특이하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들이 강의평가 혹은 학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의 학습활동 정도에 따라 평정일관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은 남성, 수강과목이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여성( $t(1,097)=2.85,$

<표 5-2> 인구학적 배경 및 학습활동 정도에 따른 평정성향,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F검증)

영역	변인		N	강의평가 참여일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강의평가 결과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인구학적 배경	연령	≤30세	302	14.52	7.45	2.88	.25	.28	.97	.26	.29	1.30	2.13	.78	1.15
		31-40세	357	15.63	7.52		.22	.24		.23	.26		2.10	.74	
		41세≤	439	14.44	7.49		.24	.27		.25	.29		2.18	.71	

$p<.01$ ), 상대적으로 수강과목이 적은 연구대상자 ( $t(1,097)=2.47, p<.0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에서도 성 및 수강과목 수와 더불어 편입생이 신입생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평정일관성을 보였다( $t(1,097)=3.44, p<.001$ ). 남성 혹은 수강과목이 많을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강의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남성 ( $t(1,097)=2.75, p<.01$ ), 수강과목 수( $t(1,097)=2.96, p<.01$ ) 혹은 로그인 횟수( $t(1,097)=2.73, p<.01$ )가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반대편의 연구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정성향의 어떤 하위 변인과도 관련을 맺지 않았다(<표 5-2>).

### 4.3 강의평가 결과 관련 변인

앞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을 별도로 추출하여 이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이들 변인과 함께 종속 변인인 강의평가 결과가 함께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 성						
2. 입학유형	.02					
3. 수강과목수	-.13***	.00				
4. 로그인횟수	.03	-.14***	.25***			
5.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09**	-.05	-.10**	-.02		
6.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07*	-.11***	-.08*	.04	.37***	
7. 강의평가결과	-.09**	.04	.10**	.11***	-.20***	-.26***

-  $p<.05^*$ ,  $p<.01^{**}$ ,  $p<.001^{***}$

먼저, 인구학적 배경 중 성은 입학유형과 로그인 횟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수강과목 수는 입

학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다. 로그인 횟수의 경우에는 입학유형( $r=-.14, p<.001$ ), 수강과목 수( $r=.25, p<.001$ ), 강의평가 결과( $r=.11, p<.001$ ) 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 모든 유형의 평정일관성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r=-.20, p<.001$ )과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r=-.26, p<.001$ )은 강의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른 독립변인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변인 중다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eta$ )	t	VIF
	B	표준오차			
성	-.10	.05	-.06	-2.00*	1.03
수강과목수	.02	.02	.04	1.42	1.10
로그인횟수	.02	.00	.11	3.84***	1.08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29	.09	-.10	-3.30**	1.17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60	.08	-.22	-7.21***	1.17

-  $R^2=.10$  ( $n=1,096, p<.001$ )      -  $p<.05^*, p<.01^{**}, p<.001^{***}$

연구대상자의 평정성향과 학습활동, 인구학적 배경이 종속변인인 강의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본 분석을 위한 회귀방정식에는 종속변인에 대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된 성, 수강과목 수, 로그인 횟수,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 등이 '입력' 방식으로 투입되었다(<표 7>). VIF 수치를 산출한 결과, 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방정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의 변량 중 10%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R^2=.04, F(5, 1,092)=24.40, p<.001$ ). 서로 다른



독립변인을 통제된 상황에서 각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표준화계수에서는 전체 수강 과목 간 평정일관성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 $\beta = -.22$ ,  $t(1,096) = -7.21$ ,  $p < .001$ ),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 ( $\beta = -.10$ ,  $t(1,096) = -3.30$ ,  $p < .01$ ), 로그인 횟수 ( $\beta = -.11$ ,  $t(1,096) = 3.84$ ,  $p < .001$ )가 유사한 수준의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인구학적 배경 중 성 ( $\beta = -.06$ ,  $t(1,096) = -2.00$ ,  $p < .05$ ) 역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였다. 상관분석에서 강의평가 결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수강과목 수는 본 회귀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다른 변인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로 인하여 독립적 영향력의 정도가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본 방정식에 포함된 5개 변인이 연구대상자의 강의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남성이거나 로그인 횟수가 많을수록, 혹은 평가문항이나 전체 수강과목에서 보여준 평정의 일관성이 커서 강의평가 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수록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강의평가 결과가 수강생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학습참여, 평정성향 중 일부 변인의 독립적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온라인대학 학습자들의 평정성향을 규명하고, 평정성향을 포함한 학습자 특성들이 강의평가 결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인구학적 배경, 학습활동 특성, 평정성향 등을 강의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강의평가 참여 시 자신만의 평정성향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대상 과목 수강생의 강의평가 참여율은 절반을 넘는 정도였으며, 이들 과목의 강의평가에 참여한 수강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모든 과목의 강의평가에 참여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수강생은 강의평가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대학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를 학점 확인의 선행조건으로 강제하지만[11][37], 위 결과는 강의평가와 학점 확인 간의 연계효과가 모든 수강생에게서 나타나지는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편, 평정일관성 측면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모든 문항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30][32]. 다만, 평가문항 간 평정일관성과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발견은, 일관적 평정성향은 과목 특성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학습자 개인의 평정성향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인구학적 배경과 학습활동 정도에 따라 강의평가 참여일, 평정일관성, 강의평가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구학적 배경의 경우, 남성, 편입생, 수강과목 수가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평정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1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습활동 특성의 경우, 출석점수가 만점이거나 게시판 활동 및 로그인 횟수가 많아 학습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던 연구대상자들은 강의평가 참여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특히 이들의 강의평가 참여일 평균이 학습에 덜 적극적인 집단과 반대로 성적 공개일 이전이라는 점은 이들의 강의평가 참여목적이 학점 확인 뿐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수업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라는 보다 순수한 차원에서 이해될 여지를 남긴다.

한편, 평정일관성은 학습활동의 적극성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관적 평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평정일관성은 통상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30][36][37]. 예컨대, 박인우[36]는 일관적 평정이 강의평가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오은주[19]와 이원석 외[37]는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일관된 응답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정일관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학습활동 변인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 평정에 대한 학습활동 특성

과 관련된 어떠한 실증적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조한 학습활동을 펼치는 학습자들이 강의평가에도 무관심하여 일관적 평정을 할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나, 실증적 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참여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양 극단의 학습자들이 모두 일관적 평정의 경향을 보였다는 양길석[11]의 연구결과 역시 일관적 평정을 무성의한 응답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강의평가에서의 일관적 평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강의평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학습활동의 적극성, 일관적 평정성향 등의 독립적 역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평정일관성 특히 전체 수강과목 간 평정일관성은 강의평가 결과에 가장 높은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간 평정일관성이 강의평가 결과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11][32]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강과목 전체에서의 일관성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이다. 로그인 횟수가 많았던 연구대상자[8][28]와 남성[2][11][30]의 독립적 영향력이 높았다는 발견은 선행연구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연령이 강의평가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결과는 이들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12]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평정성향 전반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점은 이것이 본 연구의 맥락에서만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향후 다른 맥락에서 재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지닌 학술적 의의와 실천적 측면에서의 제안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의평가와 관련된 학습자의 평정성향을 비교적 세분화하여 탐색함으로써 평정일관성으로 한정되었던 기존 연구의 관점을 확대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한 평정척도 중심의 강의평가로 교수자나 강의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때는 학습자의 평정성향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는 강의평가 결과 해석 시 수강생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구조화된 서술형 평가나 학습자 대상의 인터뷰 평가 등의 추가가

필요하다. 또한 일관적 평정으로 인한 결과 왜곡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치에 대한 확인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관적 평정으로 인한 평정결과의 차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학습자 관련 변인의 통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40][41].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강의평가가 이런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온라인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습자 이외의 대상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학습자의 평정성향이 강의의 종류 및 수준이나 교수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하였다. 특히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이 설명한 종속변인의 변량이 10%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정성향과 과목 간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백순근, 신호정 (2008).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대학생의 강의평가 분석 - S대학교 교양 강의. *교육평가연구*, 21(2), 1-24.
- [2] 손충기, 김영태 (2007). 수업평가 관련 변인에 따른 수업평가 결과 차이 탐색 연구. *교육평가연구*, 20(2), 1-24.
- [3] Jones, S. J. (2012).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online course evaluations: Identifiable actions that improve student perception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ourse valu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6(1), 49-58.
- [4] Centra, J. (2003). Will teachers receive higher student evaluations by giving higher grades and less course work?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4(5), 495-518.
- [5] 류춘호, 이정호 (2003). 대학의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경*

- 영학연구, 32(3), 789-807.
- [6] 양길석 (2014a). 대학 강의평가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연구. **교육방법연구**, 26(2), 293-322.
- [7] 지은림 (1996). 교수강의평가에 미치는 학생변인효과. **교육발전연구**, 12, 113-124.
- [8] 황인수 (2008). e-러닝에서 학습자의 사전동기와 수강관련 요인이 강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1(2), 103-126.
- [9] Ting, K. (2000). A Multilevel Perspective on Student Ratings of Instruction: Lessons from the Chinese Experien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5), 637-661.
- [10] 김명량, 강민석, 김민희 (2013). 강의평가 응답 태도 건전성 측정도구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765-784.
- [11] 양길석 (2014b). 대학 강의평가 일관적 응답의 경향성과 영향력 분석. **교육평가연구**, 27(2), 255-278.
- [12] 한신일, 김혜정, 이정연 (2005). 한국대학의 강의평가실태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3(3), 379-403.
- [13] 김석용 (2010). **조사연구 방법론**. 탐북스.
- [14] 김보나, 우종정 (2011).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9(3), 213-219.
- [15] 김현숙 (2011). 사이버대학교에서의 강의평가 분석과 적용, **사이버사회문화**. 2(2), 133-168.
- [16] Cashin W. E. (2003). Evaluating college and university teaching: Reflections of a practitioner. J. C.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18, 531-593,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17] Arun V. S. (2013). Appraisal of students ratings as a measure to manag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Research*, 7(3), 3-14.
- [18] 이정기 (2013). 대학 강의 평가문항 개선 및 활용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247-274.
- [19] 오은주 (2009). 강의평가 실태조사를 통한 강의평가 개선 방향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1-20.
- [20] 이희원, 민혜리 (2013). 수업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방안 탐색. **열린교육연구**, 21(3), 257-283.
- [21] 이호배 (2005). 학생의 수업관여도와 강의평가 관심도가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 연구**, 23(3), 95-117.
- [22] 한신일 (2001).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의 관련 요인 분석: 교수, 학생, 수업관련요인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4), 247-266.
- [23] 이재만, 차영준 (2012).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에서 집단별 표준화변환을 이용한 강좌평가모형.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23(1), 143-150.
- [24] 추준석, 이영수 (2003). 강의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 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영산논총**, 11, 97-126.
- [25] Marsh, H. W., & Roche, L. A. (1997). Making students' evaluations of teaching effectiveness effective. *American Psychologist*, 52(11), 1187-1197.
- [26] Bawane, J., & Spector, J. M. (2009). Prioritization of online instructor roles: Implications for competency-based teacher education programs. *Distance Education*, 30(3), 383-397.
- [27] Berge, Z. (2009). Changing instructor's role in virtual worlds. *Q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9(4), 401-415.
- [28] 임형, 노은하 (2001). 강의평가 결과의 심층적 분석 및 해석: 성공회대학교의 1999년과 2000년 자료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 16, 81-102.
- [29] 엄진섭 (2013). 사이버대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5), 49-58.
- [30] 최보금, 김재웅 (2013).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강의평가 관련 요인 탐색: 무성의 응답의 영향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1(1), 77-100.
- [31] 정영란 (2009). 사이버대학에서 수업만족도 영향 요인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23(1), 61-94.
- [32] 홍경선 (2006). 대학교 강의평가에 나타난 일관적 응답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97-127.
- [33] Agoritsas, T., Lubbeke, A., Schiesari, L.,

& Perneger, T.V. (2009). Assessment of patients' tendency to give a positive or negative rating to healthcare, *Quality & Safety of Health Care*, 18, 374-379.

- [34] 김구 (200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비엔엠 북스.
- [35] Krosnick, J. (1991). Response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cognitive demands of attitude measures in survey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5(3), 213 - 236.
- [36] 박인우 (2012). 대학강의평가에서 무성의 응답에 대한 학생의 자기평가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방법연구**, 24(1), 257-281.
- [37] 이원석, 이현우, 정영근 (2012). 대학 강의평가에서 실시 방식이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방법연구**, 24(3), 547-561.
- [38] 장영주 (2012). **대학 강의평가제도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39] 하오선, 정민호 (2014). 강의평가 응답분석을 통한 강의평가도구 개선방안 - D대학 강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2(3), 273-294.
- [40] 손영민, 채수은 (2016). 영향 요인 조정을 통한 강의평가 결과 공개방안. **교원교육**, 32(1), 1-24.
- [41] 이명숙, 손유익 (2013). 스마트러닝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3), 31-39.



## 이 의 길

1997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2003 미국 SUNY at Albany 교육공학전공(Ph. D.)

2004~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온라인학습, 모바일러닝, 수업설계, 성인학습자

E-Mail: elee@cuk.edu



## 김 윤 정

199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2005 영국 Univ. of Bath 사회복지 및 정책 (Ph.D.)

2005~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온라인학습, 돌봄인식과 교육, 노인 및 영유아 돌봄 정책

E-Mail: lance@cuk.edu



## 김 주 혜

1994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2001 미국 Univ. of Texas 영어교육학 (Ph.D.)

200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온라인학습, 영어평가, 멀티미디어영어 교육, 어린이영어교육

E-Mail: jhkim@cuk.edu